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목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발행처: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800

THE WEEKLY CHŒ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용홍 편집: 양재웅

십자가 '침'

한여름입니다. 많은 분이 휴가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막 6:31)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쉼은 필요하지만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참된 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골 1:20). 십자가에서 떠난 생각, 말,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순간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쉼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느니라"(시 23:1~2).

충현 음악아카데미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 106:12)



충현 음악아카데미 시간표

과목	일시	과목	일시
불꽃	토	성악	화·목 수·목 화4시(2시간 4명 그룹)
오보에	화	오르간	화·수 토1시·토3시 목5시·토2시·토4시
클라리넷	토	화성&시창송	목·수
혼	토	만주법	목·토
컨트럼펫	토	피아노	수·토 화·목
컨트럼폰	토		
악류바	수·토		
비올라	화·토		
첼로	화·목		

문의/장원희 집사 552-8200(내선 259) · 010-9004-9140

지난 5월에 개원한 충현 음악아카데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현 음악아카데미는 현악기와 목관 및 금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열린 음악교육의 장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생님의 맞춤식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는 어린 아이부터 고령의 수강생들까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기대로 뜨겁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찬양대(금요찬양집회)와 호산나찬양대(수요부예배)에 오케스트라가 곧 조직될 수 있는 이유도 충현 음악아카데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현 음악아카데미가 그 영광을 더 넓혀 다양한 장르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충현 음악아카데미가 전교인 1인 1악기 시대를 만들어갈 찬양의 요람(골 3:16)이 되도록 모든 성도의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 충현장학생 영단(본지 7면)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비판하지 말자 (로마서 14:1~12)

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늦게 여기는 자들이었다(롬 14:2, 5, 21). 문제의 핵심은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교인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지도 모른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고기나 술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고 싶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고전 8:4).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였다(롬 14:1).

교회를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온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바울은 이에 대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이들도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 어떤 이는 믿음이 강하고 어떤 이는 약하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도 교회 안에 그의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각자의 취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다른 두 개의 그룹이 각각 설 자리가 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에게 있는 자유다. 각 그룹이 한 교회 안에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결코 교회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편은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규정들을 따라서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다(롬 14:3).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강한 자들이 비록 정당할지라도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문제 안에서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한 자는 바로 그 약함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무기를 지니는 것이다. 소수의 무리가 정말로 나쁜 것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그 약함의 보상을 찾으려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약한 자를 향하여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롬 14:4).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설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들에게 손을 대게 된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다(마 7:1~2).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의지, 세상의 가치관, 의식주, 교회의 예배, 절차, 윤리 등 외형적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이다(롬 14:6~9; 갈 2:20). 바울은 다시금 처음의 질문을 반복한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롬 14:10).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주장은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같은 모양으로 지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거부한다(고후 5:10). 내적으로 약한 자와 강한 자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행동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각자가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또 하나님께 직접 서서 보고하게 된다(롬 14:11~12).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모두 같다. 모두가 각자 행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이다. 아멘.

DO NOT WORRY

(25)⁶⁴“For this reason I say to you, do not be worried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26)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at they do not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worth much more than they? ... (33)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34)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Matthew 6:25~34)

The Bible clearly teaches us that worry is the opposite of faith, but if you don't have any food or drink in your home today, aren't you going to be seriously concerned? If you open up your closet and don't find any clothes, aren't you going to be very troubled? Who can escape from worrying? Who can overcome the temptation of fear? In today's Bible passage, Jesus teaches us not to worry, especially over food and clothing. "For this reason I say to you, do not be worried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Mt. 6:25). God tells us that He takes care of all these things. Today's passage is easy to understand but hard to accept. If you truly accept this truth, you can live of from worry.

Look around you my friends. From the moment you were born, this world has taught you how to survive and worry. From the moment you could read, write, and talk, the media has forced its anxiety issues upon you. Whatever you do now, your mind wants you to worry. Put away your anxieties, especially concerning your daily provisions. Trust God! How many days have you starved from hunger because of lack of food? How many days have you walked around naked because you had no clothes? Look at the birds. They don't plant, harvest, or even store up food, and yet God provides for them.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at they do not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worth much more than they?" (Mt. 6:26). You are so much more important than any bird or flower because God sacrificed His Son for your salvati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Now, look at the beautiful flowers that don't even have the means to care or dress themselves. "And why are you worried about clothing? Observ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toil nor do they spin, yet I say to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clothed himself like one of these" (Mt. 6:28~29). God's love is always upon His children. He takes care of believers, always leading them and guiding them toward Him.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aliv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urnac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You of little faith! Do not worry then, saying, 'What will we eat?' or 'What will we drink?' or 'What will we wear for clothing?'" (Mt. 6:30~31).

Look above you my friends. "For the Gentiles eagerly seek all these things;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Mt. 6:32~33). What a comfort to have in this world! Nothing takes God by surprise. He knows everything that is going on with you. He is not only aware of all your needs, but He is active in taking care of them. Why worry when God is working? Why worry when you know that God will provide? Please stop acting like the faithless ones. Worry spoils your testimony. Others need to observe your faith. People are always watching you to see how you handle adversity. The great provision in faith is to seek God first, and all else will be added to you. That's God's promise, and all you need to do is to believe it. Please start acting like the faithful ones.

Live one day at a time with thanksgiving my friends. Don't be anxious about tomorrow. Worrying doesn't provide strength for tomorrow. If you know that you are a child of God and that God is always with you, then you need not worry about tomorrow. Do you really believe in God? Worry drains the energy that you need today and the energy you may need to handle the things of tomorrow. Tomorrow may be tough, but there is no need to worry because whatever is going to happen is by no means a surprise to God, and God is with you. No one is promised tomorrow, so can you feel safe for today? Jesus said. "And who of you by being worried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Mt. 6:27). God will still be alive tomorrow, too.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Mt. 6:34).

My dear friends, the truth of living in this world without worry is real. It is possible for all who have faith. Paul reminds u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 4:6~7). Believe it and live it because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Start enjoying the blessing of worry-free living. Amen. ■

염려하지 말라

⁽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²⁶⁾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 ⁽³³⁾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25~34)



김성관 목사

성경은 염려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두려움이라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특히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마 6:25).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행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생존하는 법과 함께 염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말하는 순간부터 대중매체는 걱정스런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쏟아 붓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늘 근심을 달고 삽니다. 근심을 던져버리십시오. 특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음식이 없어서 굶주렸던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녔던 적이 며칠이나 됩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음식을 모아 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마 6:26). 여러분은 어떤 새나 꽃에 견줄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제 아름다운 꽃들을 한 번 바라보십시오. 꽃들은 스스로를 가꾸거나 치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나니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8~29).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주님곁에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 6:30~31).

네 위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쳐다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2~33).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은 당혹스럽게 만들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필요들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알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더 이상 믿을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여러분이 증거한 믿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다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한 날씩,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내일 필요할 힘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염려는 오늘 쓸 에너지와 내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내일이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 6:27).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 수 있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39

예수님의 겐세마네 기도(제자들)

습을 살펴보자.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눅 5:28).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울 청년의 부르심에 그들은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순종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물론 감동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종교지도자들의 비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12제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다(요 6:68).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 제자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겐세마네에서 12제자의 모습을 각각 특색 있게 기록하였다.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마가(막 14:32~33)와 세관이었던 마태(마 26:36~37)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반면 누가(눅 22:40)와 요한(요 18:1)은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마가는 12제자를 각각 다르게 호칭하였다. 처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다가 '그들', 그리고 '열둘'이라고 기록하였다. 가롯 유다는 아예 '그'라고 기록하였다(막 14:17, 20, 26, 43). 이후 계속 침묵하다가 부활 후에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막 16:7).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공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겐세마네에서 기도하였다. 이곳에서 12제자의 모

생애기간 동안 다른 제자들에게 비해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다(마 17:1). 뿐만 아니라 겐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을 가까이 두셨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 26:40).

'12제자'는 분명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우리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고통을 아셨기에 기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겐세마네로 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서 전혀 영적 긴장감 없이 자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은 깨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였다.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제자'라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의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자각이다. 제자들은 겐세마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그곳은 고사하고 아바 사역 초반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이다.

나의 신앙연수나 풍부한 사역경험과 지식, 직분을 내려놓자. 매순간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자. 죄인이기에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찬 263장).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취하실 것 (누가복음 1:32~33)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 가서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다(눅 1:26~28). 바로 모든 유대인이 대망하였던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눅 1:30~38). 오늘 본문은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취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 메시아를 대망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나 메시아(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만 삶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려는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하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하나님은 구약선지자의 예언대로 친히 마리아에게 징조를 보여 주셨고, 실천하셨다(사 7:14).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탄생하였다(미 5:2).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눅 1:30~32).

●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성취하실 것이다(눅 1:32).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요일 5:12~13).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마 2:2). 이제 우리가 다윗의 왕위를 성취하실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때가 왔다(막 1:15). 진심으로 회개하자(마 3:2).

● 이 땅 위에 그의 왕국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사 9:6)대로 이 땅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은 십자가다(사 53장). 십자가를 통해서 왕국은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마 6:9~10). 언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취될지는 모른다(행 1:6~7). 단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세례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19~21). 그의 왕국이 성취될 때 모든 사람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딤후 4:1), 보혈로 거듭난 주의 백성은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찬양할 것이다(레 19:13~16, 20:6).

●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정의를 가져 올 것이다. 이 정의는 인간의 것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순전히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사 9:7).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눅 2:14).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해질 것이다(빌 4:6~7). "말씀이 형제들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이 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이다. 우리의 초점에서 십자가가 사라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취할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 만왕의 왕이 되어 주의 왕국을 이루어 참된 정의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제?'라고 질문하며 우리를 헛갈리게 할 사탄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자.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찬 550장)을 맞이할 수 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망글까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

6교구 2팀은 최옥길 안수집사를 팀장으로

7명이 하나가 되어 라오스로 선교를 다녀왔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7명의 팀웍(teamwork)이 유난히 좋아 팀 애단식이

창단식이 되기를 바라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보았다.



1. 선교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성취된다. 미국에 있던 누나가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니를 보살피 주어서 마음 편히 선교를 갈 수 있었다. 나의 시간표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다. (우종호 집사)

· 그 동안에는 소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자원하였다. 선교 가기 전부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선교지에서는 온자 방을 쓰면서 더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유기순 집사)

· 주님과 나라의 모든 소통관계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옥길 안수집사)

· 때면 선교를 갈 때마다 나의 기도제목은 남뎌 전도였다. 한때는 성경책을 찾아 버려던 남뎌였는데, 이번에는 순순히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묘남 집사)

2.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 어느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맨바닥에 누워 계셨다. 병 천개 메달라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드리니 딸이 고맙다고 인사했다. 원두막에 이불도 깔지 않고 누워 아파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이묘남 집사)

· 학교와 공원, 길가에서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을 불렀다. 처음에는 찬양을 하면 신고가 들어온다고 겁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남수록 함께 운동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좋아했다. 깔깔거리면서 신나 마던 남자 아이들이 눈에 선하다. (윤자옥 집사)

3. 선교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 라오스는 마을 중심지에도 사원이 많다. 사원 근처에서는 특히 공안을 조심해야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선교일정을 마칠 수 있어 감사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목회인이 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순순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주었다. (우종호 집사)

· 라오스는 공산국가여서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다. 때문에 전도지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전도 언어를 완전히 외워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100장의 전도지를 메모리 장거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최옥길 안수집사)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란 전도문장을 만들었을 때, 현지 통역기사가 '파파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 외에 부타와 포괄적인 신의 개념으로도 쓰인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예수님을 부타의 아들이라고 잘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됐지만, 성경만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유기순 집사)

4. 전도하면서 감사했던 순간이 있다면?

· 덥고 습한 기후로 전도하는 데 애를 먹었으나 사람들이 더운 날씨 탓에 길에 나와 앉아 있어서 말 걸기가 쉬웠다. 또, 몰타나 마당이 없어 집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도 가능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윤자옥 집사)

· 교회에서 지원받은 약들이 요가라 좋아서인지, 감기 치료와 구이 퇴치를 잘 할 수 있었다. 많은 질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팀원 모두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선교를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유기순 집사)

· 팀장님을 중심으로 팀원 모두 자신의 주장만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묘남 집사님이 굳은 일을 도맡아 주셔서 섬김의 분이 되었다. (이종호 집사)

5. 예수님께 한 마디

· 라오스의 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총명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옥길 집사)

· 라오스 전역에 십자가가 무뎌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종호 집사)

(이묘남 집사)

· 부족한 저를 선교하는 자로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번과 다다른 분들과 함께 선교 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윤자옥 집사)

· 라오스에 만난 한 분 안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복순 집사)

· 팀 애단식이 팀 창단식이 되어 내년에도 우리 팀원이 뚝뚝 뭉쳐서 선교 가게 도와 주세요. (최옥길 안수집사)

취재 : 오남규 기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준비된 영혼들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저의 용기 없음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사랑 없이 메마른 토를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복음의 물로로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의 사역은 학교 사역과 축회 전도, 노방 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름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보다 선생님이나 교직원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언어 실력이 부족하여 두려움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곳의 영혼들과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빈들'에 따른 풀 같이 시들면 나의 영혼'을 찬양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영혼들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의 영혼 속에도 기쁨이 가득 차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찾아가는 길에서 애매 때 전도되는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모습을 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한 물에서 만난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평야와 구름기둥, 꽃밭의 말, 양, 소의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영혼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람이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러 하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며 그곳에서 우상들과 무슬림 교도도 보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갈급해 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드는 물결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생명의 해가 아침이 기록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미선(정명1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3일(금) - 8월 21일(토)	7교구 2팀	강현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0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2일(월) - 8월 10일(화)	대학부 3팀	권영일	8월 3일(화) - 8월 11일(수)	22교구 1팀	김성수
8월 2일(화) - 8월 11일(수)	11교구 3팀	조영진	8월 4일(수) - 8월 12일(목)	24교구 3팀	홍승진
8월 3일(목) - 8월 11일(수)	2교구 2팀	최희태	8월 5일(목) - 8월 13일(목)	5교구 3팀	김은심
8월 3일(목) - 8월 11일(수)	10교구 2팀	김희태	8월 6일(금) - 8월 14일(토)	청년1부 4팀	정인선
8월 3일(목) - 8월 11일(수)	17교구 3팀	김종민	8월 6일(금) - 8월 14일(토)	9교구 2팀	조영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1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6일(월) - 8월 3일(화)	21교구 3팀	임재봉	7월 30일(금) - 8월 6일(토)	16교구 2팀	남준호
7월 27일(화) - 8월 4일(수)	1교구 1팀	윤선한	7월 31일(토) - 8월 7일(토)	17교구 2팀	박성철
7월 28일(수) - 8월 5일(목)	5교구 1팀	최동식	7월 30일(금) - 8월 7일(토)	16교구 3팀	김병화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2교구 2팀	백재홍	7월 30일(금) - 8월 7일(토)	24교구 3팀	정재영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3교구 2팀	이상배	8월 2일(월) - 8월 13일(목)	중동부 4팀	이정연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4교구 2팀	신현환	8월 2일(월) - 8월 13일(목)	중동부 5팀	정해진
7월 29일(목) - 8월 6일(토)	6교구 3팀	김정현	8월 2일(월) - 8월 13일(목)	중동부 6팀	홍준호
7월 29일(목) - 8월 6일(토)	10교구 3팀	정철권	8월 2일(월) - 8월 13일(목)	고동부 3팀	송승훈
7월 29일(목) - 8월 6일(토)	15교구 2팀	박진영	8월 2일(월) - 8월 13일(목)	고동부 4팀	김영환
7월 29일(목) - 8월 6일(토)	18교구 2팀	김종영	8월 2일(월) - 8월 13일(목)	청년1부 3팀	박승산
7월 29일(목) - 8월 6일(토)	22교구 2팀	김재호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1학기의 학교 생활이 다 끝나가고 수련회가 다가올 즈음 내 영혼은 많이 지쳐 있었다. 그렇지만 항상 그랬듯이 내가 보여드렸던 작은 믿음의 씨앗에 비해 훨씬 후히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2010년도 여름수련회로 향하는 버스에 내 마음과 몸을 싣었다. 하루 온 종일을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하며 주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몸을 부대끼며 공동체 훈련도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는 부흥회 시간에 주님은 우리 대학부에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 번 집중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부인의 자리는 피하고 외면했던 내 모습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셨고 절리게 하셔서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회 시간에는 수련회에서 갖는 한 번의 부흥회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신앙의 고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흥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스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 실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

이번 수련회에서 허락하신 은혜에 힘입어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 가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날로 날로 내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들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선애(대목부))

예수님 안에서의 나

사십 장만을 넘기며 갈수록 열려라라는 짐과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하루쯤 주안에서 힘을 얻고 싶어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온종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었다.

자녀에 관한 특강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르는가' 하는 방법이라 아니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며 이 선물을 통해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이 더 세워져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난다. 그 동안 나 자신도 잘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기만 했는데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정해 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을 깨달았다.

또 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나는 기도문이 대단한 용사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다시 보니 기도문은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수틀에서 밭을 타작하는 겁쟁이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의심 많은 자였다. 기도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3백 용사라는 그의 부하들도 사실은 미디안을 이기기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주님은 이기지 못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아닌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려 주신다. '나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왜 주님께서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바로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답을 주셨다. 장년1부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여 드리기를 소망한다.

(양은혜(집사, 장년1부))

청년들의 눈물 그리고 은혜

청년부

회개

수련회를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들이었으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계 3:17).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와 같음을 보게 되었다. 돈, 진로, 이성, 건강의 문제들을 세상에 맞추어 해결하려 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던 나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셨다(약 4:8). 사랑 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악들을 알게 해 주셨다(계 3:19).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였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였다.

(조종현)

말씀을 들으며 나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 하는 게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씀이 끝난 후 기도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동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했던 내 기도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했었음을 알게 해 주셨다. 내 역시 내 의지와 결심과는 상관없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주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 그 어떤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기를 원하셨고,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게 하셨다. (고지영)

믿음

아는 것에서만 그치고, 믿지는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믿음조차 없어서 제자들과 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않았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느 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한 사람이 두 손에 십자가를 삼키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진 채로 힘들고도 무장부렀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함과 동시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자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 (전남정)



충남 음악아카데미 / 중현장학생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지난 7월 30일, 금오잔악집회에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2010년 5월에 개원한 충남 음악아카데미 학생들의 금관중주 순서였다.

이들은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음에도 손익이 연주를 마쳤다.

놀랄만한 사실은 이들의 평균연령이 70세의 고령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실에 놀라 연주자 두 분을 만나 보았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 1941년생이니, 70세라고 해야 되겠소. (이문 장로)

· 저도 70세입니다. (조종환 장로)

어떻게 트럼펫을 배우게 되셨나요?



라고요. 위임목사님의 적극적인 권면과 격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종환 장로)

· 어릴 적부터 트럼펫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시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충남 음악아카데미가 개원하였고, 주위의 권면과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문 장로)

연습은 어떻게 하십니까?

·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7월 30일에 발표했으니 정확히 30일 만에 발표한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 애를 태웠었는데, 처음으로 소리를 냈을 때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매일 새벽에 모여 전체 연습을 했고,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며 매일 틈틈이 트럼펫을 놓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이문 장로)

· 저는 진짜 음악에 문외한입니다. 사실 악보를 전혀 볼 줄도 모르지요. 그래서 더욱 열심이 연습했습니다. 아카데미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지도를 받았고, 연습에도 빠지지 않

았습니다. 제가 30일 만에 이 정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조종환 장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 저는 단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처럼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음악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조종환 장로)

·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남아 있던 고령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고 연습하면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찬양대원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니,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 장로)

이 두 분 외에도 이번 연주에 함께 한 학생들은 모두 처음으로 악기를 접했다. 악기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음에도 연주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피땀 어린 연습과 탁월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충남 음악아카데미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현악·금관·목관악기는 물론 이제 개성될 성악, 오르간, 화성, 시창창을 반주할 피아노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을 배울 수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충남 음악아카데미를 통해서 전교인이 악기를 배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 150:3~4)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남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931	최현주	양곡반	7	최창하	944	김지훈	양곡반	2	최영택
932	한예지	중동부	7	김민준	945	박진영	양곡반	11	구승희
933	최미남	양곡반	1	임찬민	946	이명준	통신반	15	오명자
934	이신영	적용반	14		947	임지현	양곡반	7	윤숙희
935	이민숙		18	김성학	948	최희봉	중동부	17	김효선
936	김병권	통신반	23	손숙희	949	이희정	고동부	13	김정숙
937	김성규		9	김익태	950	김민기	양곡반	2	서대훈
938	이승도	적용반	6	송영택	951	신동환	양곡반	23	장민인
939	정수진	적용반	2		952	이남기	대학부	15	황규진
940	박서현	초등1부	2		953	박시열	양곡반	11	박창용
941	김종수	통신반	23	조성수	954	강수화	양곡반	11	박정훈
942	김민지	적용반	19	서재경	955	권민희	고동부	15	정혜원
943	국선하	양곡반	10	변진구	956	강신혁	영마부	24	

2010년 하반기 중현장학생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 (딤후 2:15)

대학원생 (12명)

강지영 고혁준 김동현 김용성 서상희 유원주 유창학 이정진 이우주 이재원
전원원 최혜슬

대학생 (107명)

강민희 강부희 강재현 강호성 권리슬 권예지 권결 김다령 김동석 김민정
김성해 김소담 김소라 김연희 김영재 김예지 김예진 김유림 김유용 김윤경
김윤영 김재민 김지훈 김지환 김진희 김태환 김하은 김혜옥 김형규 김홍미
김효남 김희숙 남미지 노하은 문상호 문영광 박다솔 박상준 박서정 박수경
박연경 박요성 박종현 박현숙 배상근 백민지 변태연 성경규 성지영 심재원
임예은 왕현정 유재성 유정현 유종훈 유수정 유윤성 이다영 이다정 이돈훈
이세롬 이선경 이세익 이수정 이신애 이은기 이은미 이은혜 이정덕 이정희
이주원 이지연 이지훈 이초환 이평화 이현술 이혜린 이효용 임대진 임성화
임지수 임진아 장성길 장성훈 전다인 전동섭 전현숙 전찬희 전형준 정구환
정나혜 정다예 정성국 정성미 정준성 정지성 정준진 조수빈 조슬기 조용진
최다영 최예진 최재진 최주연 추수환 홍서인 홍은표

고등학생 (96명)

강성종 강찬영 강철술 강하은 고민우 고수현 공예령 공진규 광정원 김대성
김명화 김민정 김신영 김아름 김우석 김은진 김경연 김종욱 김지현 김진옥
김진태 김하빈 김하은 김하은 김한나 김한나 남경숙 남명훈 남소리 노예원
돈대경 문주영 민준서 박동규 박지용 박지훈 박지훈 박채원 박무문 배성연
백수희 변유정 변지연 손현수 양성민 양성훈 양정호 양태원 여성민 원나현
원승연 원종진 유지현 윤영훈 이경아 이성민 이소연 이예주 이예원 이요한
이원진 이은혜 이예영 이주안 이진희 임소정 임승택 임진록 임종구 장민호
장지영 전진 전태준 전하예 정다호 정승우 정예림 정윤재 정의희 정현종
정현진 조유준 조진희 조하은 지현덕 최예은 최영호 최현호 권예림
한은혜 한준식 한희송 허성구 홍성우 홍지혜

충남장학생 선발자 명성문(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8월 13일(금) 15시~18시 장소: 제1교육관 407호

